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과 가정건전도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Values Taught at Home
and the Soundness of Family Life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겸임교수 이영호

교수지영숙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Concurrent Professor: Lee, Young-Ho

Professor: Chi, Young-Sook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the community values taught at home by parents affect the soundness of family life. The 914 participants in the sample were parents residing in Seoul. Major findings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1) The general level education of community-oriented values at home, which was measured by the level of parents' practice of community-oriented behavior, was very insufficient.

2) The soundness of family life was measured in six sub-areas. The six areas showed varying degrees of soundness, but the overall level of soundness was satisfactory. The conjugal relationship had the highest degree of soundness, whereas the general everyday atmosphere at home marked the lowest level.

3) The only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 that affected the practice of community values was the participants' subjective perception of their social class standing.

4) The level of practice of community values and social class variables were found to influence the soundness of family life. The level of practice of community values was an especially strong predictor in all areas of family soundness.

In conclusion, the education of community values at home, measured by the parental practice of community-oriented behavior, positively influences the soundness of the family.

▲ 주요어(key words) : 공동체규범(Community Value), 공동체적 가정교육(Education Community-oriented Values at Home)
가정건전도(Soundness of Family Life)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사회는 1997년 충격적인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21세기의 공동체건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잠시동안 누린 물질적 풍요가 우리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으며

* 주저자 : 이영호 (E-mail : woolee62@hitel.net)

물질과 획일주의적 힘의 논리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갈등과 허영심, 그리고 소외감을 심화시켜왔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즉, 산업화되고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생존이 일차적 사회관계에 의한 협동보다는 이차적이고 익명적이며 기능적인 협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 인간관계를 변형시켰다. 이처럼 사회가 분화되고 인간이 거대한 사회구조로부터 소외될 수록 우리는 일차적 공동체(게마인샤프트)를 기대하고 회복을

갈망하게 된다(강대기, 2001).

공동체는 가장 자유롭고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간본연의 의지에 의해 형성된 사회이며 인간사회의 가장 원초적 형태이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 간의 공동체적 생활을 배우고 익히고 이를 친족, 근린, 촌락사회와 지역사회에까지 확대시킨다. 가정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행동양식과 인간관계의 형식은 공동체이해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가정은 가족과 삶의 구심력을 이루는 대표적인 공동체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가정병리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들을 보면서 가족 중심적인 태도가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연대로 확산되지 못하고(신용하·장경섭 1996), 가족 내에서 이기적인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전체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족생활자체도 점차 공동체적 성격을 상실해가고 있다(이재경, 1994)는 지적과 함께 우려를 하게 된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공동체는 단지 지나간 경험이나 향수가 아니라 우리들이 다시 찾아야하고 새롭게 구축해야 할 현실적인 목적이며 대상임을 확신하게 된다.

한편, 사회가 아무리 공동체적으로 건전하고자 노력할지라도 가정의 건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공동체사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가 아무리 불건전하다 할지라도 개별적인 모든 가정이 필연적으로 불건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명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가정의 건전도를 높이는 것이 전체 공동체의 건강을 약속받는 것이라 생각된다.

공동체는 공동체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의 의지를 실현하는 활동무대로서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장(life field)이다. 삶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며, 보다 밀착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감(we-feeling)'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극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면서 자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공동체의 유지는 자연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지켜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삶과 가치를 구성하는 공동체로부터 개인들이 해방될 때 비로소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념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절대화로 인해 개인의 삶이 오히려 황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중앙일보, 2001).

이러한 논리로 오늘의 현실에서 공동체사회를 기대하려면 자녀를 사회화함에 있어서 '우리 감(we-feeling)'을 공유하면서 공동체성을 발휘하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전면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내는 가정교육으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교육은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자녀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교육으로서 부모에게 부과된 자연적 권리이자 사회에 대한 최고의 의무이다. 이는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의 태도, 언행을 통하여 무의식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비형식

적이고 무의도된 것이 많다는 점에서 부모의 생활 전체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즉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격형성을 이루는데는 부모가 공동체 규범을 실천하는 생활모습을 자녀가 스스로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가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한 가정으로서 사회에 기능할 대 공동체는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가정학분야에서도 가정의 건전성과 관련된 연구(서병숙, 1994; 어은주·유영주, 1997; 이영호·지영숙, 1997; 이영호·지영숙, 1999; 지영숙, 1994; 지영숙·이영호, 1996; 지영숙·이영호, 1998)는 다수 있으나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과 가정건전도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가정교육 속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공동체규범의 실천(공동체적 가정교육)이 가정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 공동체사회에 기여하는 가정의 지향점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가 지향하는 공동체사회와 건전한 가정

예로부터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것은 인류의 천성이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동시에 통합된 형태로 욕구를 충족시킨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아실현방식이다. 인간도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상호작용의 결과는 공동체를 출현시킨다.

만일, 개인이 공동체를 떠난다면 생존할 방법이 없다. 무리의 생명은 개인의 생명을 기탁하는 자가 되어 무리에 발전이 있으면 개인 또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의 무리 속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개체와 전체와의 사이에 자연히 공동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서경요, 2000).

과거 전통적인 소규모의 마을과 같은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체면과 염치가 개인의 일탈행위에 규제력으로 작용했지만 고도로 세분화하고 복잡한 대규모의 도시사회에서는 체면과 염치만으로 규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한상복, 1982). 따라서 사회가 분화되고 전체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가운데 인간이 거대한 사회구조로부터 소외될수록 사회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임희섭, 1995; 신용하·장경섭, 1996; 김태길, 1997; 이정천, 2001)에 의하면 미래의 사회가 더욱 분화되고 더욱 전문화될수록 각기 다른 입장과 이해를 추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적이 되므로 상호간에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동의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 외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개인은 공동체에서 분리된 원자에 지나지 않으며 구 성원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서로를 알지 못하면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힘을 합하기 어렵게 되고, 협동이 어려우면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공동체’ 하면 혈연이나 지연에 의거한 공동체를 떠올린 것도 사실이다. 혈연공동체나 학연, 지연에 의한 공동체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존재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 공동체적 이기주의에 빠지는 점을 많이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로부터 우리에게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의식적인 배려와 공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다. 바로 이 습관은 환경에 휩쓸어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결국, 습관은 생활을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기대하는 가정의 기능과 역할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자녀를 낳아서 사회성원으로 사회화시키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요구된다(이동원, 1996). 여기서 사회화라는 것은 사회일반의 문화와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고 공유하여 자기의 인성, 성격, 사고방식, 행동양식, 습관 등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사회화의 진행과 방향에는 자녀로 하여금 신뢰감이나 협동심을 키우고 익히는 가정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전 가정의 필수조건이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사회에 기여하는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 간의 공동체적 생활을 배우고 익히고 이를 친족, 근린, 촌락사회와 지역사회에까지 확대시킨다. 가정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행동양식과 인간관계의 형식은 공동체이해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기르케(Gierke, 1990)와 쾤니히(König, 1968)는 공동체개념이 가족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전한 가정이란 ‘지역사회단위’에서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그 기능들의 수행을 위한 올바른 태도, 실천하는 용기,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가정이며, 그 정도가 높은 가정을 가정건전도가 높은 가정이라고 하였다(지영숙·이영호, 1998). 이처럼 건전하다는 의미는 건강을 포함하여 각 계계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공동체사회와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 도모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동체적 가정교육

공동체의 기본정신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에 기초하고 있다. 즉 개인의 태도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으로 이끄는 사회적 규범과 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건전한 공동체는 개인으로 하여금 이타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적 태도를 갖게 하는 분위기로서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동체사회에서의 핵심적인 운영원리는 연대(연대성)이다.

연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과 공동의 성취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느끼고 적극적인 원조와 격려와 동참,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고, 사회적인 문제나 요구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과 사회적인 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함께 함을 의미한다(김영환, 2002). 그렇다면 21세기 이상향으로서의 공동체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연대성에 근거한 공동규범의 실천이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자녀의 사회화를 위한 가정교육 가운데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공질서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밀(1910)은 사회적 의식이 곧 배려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이는 태생적인 심성이 아니라 학습되는 심성으로 보았다. 배려의식은 교육이나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가변적 자원이며 더 나아가 배려의식은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전염된다고 주장한다(이정전, 2001에서 재인용). 즉 남을 배려하는 특정인의 마음이나 특정인의 이타심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부지불식중에 그 효과가 펴진다는 것이다.

이동원(1996)은 한국사회에서 배려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대상자 가운데 23%가 ‘학교나 가정에서 질서의식이나 배려문화에 대하여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과의 비교에서도 한국부모가 자녀에게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가장 적게 한다고 하였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장현섭(1994)도 한국사회를 무규범의 사회로 전락하는 중이라고 진단하고 그 주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들고 있다.

또한 강완숙(1998)은 오늘날 한국의 가정교육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녀가 공동체 규범을 내면화하여 책임 있고 자율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한 규범을 얼마나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사회화의 내용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공동체적 지식을 단순히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생활의 지혜를 보여주고, 함께 하고, 느낌을 공유하면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공동체적 가정교육은 모범을 통한 교화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절대자이다. 이런 시기에 부모의 이타적인 공동체규범의 실천 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모델이 되어 스스로 익히고 모방하게 만든다.

요컨대 배려의식이나 공동체규범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함으로써 함양되는데, 자녀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영향력있는 부모의 공동체적 실천 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모델로 하여 스스로 배우며 모방하게 하므로 자녀를 공동체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베커는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전형적인 영역으로 가정을 꼽았다²⁾.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타심 실천은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정은 소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그리고 인적자본 형성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Becker, 1981).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의 가정에서 공동체의식 함양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도덕적 심성교육의 문제에 해당하며 심성교육의 핵심은 가치관 교육이다. 가치관교육의 요체는 바람직함(desirable)에 대한 생각이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선택의 지혜를 가르침에 있다.

이처럼 공동체적 가치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 경중과 고저에 대한 지식을 부모가 우선 터득하고 실제로 공동체규범을 실천함으로써 자녀에게 전수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전체 가족이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고 가족간에도 존중하는 건전한 가정을 가꾸고 그리하여 부모의 공동체적 가정교육을 통해 공동체성에 근거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경제학자 뷔캐넌(J. Buchanan)은 사람들과의 공동체성에 기초한 신뢰, 협동심 등을 사회적 자본으로 명명하면서 한 사회의 발전과 부의 창출에는 원칙과 규범의 준수가 근원이며 일단 파괴된 윤리를 회복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뢰는 공공재 성격을 갖는 자본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이나 사회적 시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조를 조장하는 유대는 사회적 자본으로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황경식, 2001).

이미 지난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행사에서 한국시민은 열의있는 응원과 함께 평화롭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을 스스로 경험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적 생산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응답자의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응답자의 영역별 가정 건전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는 이타심을 가지고 가족모두의 복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혼신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 마치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즉, 가격기구)이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교통정리 하듯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사랑 어린 보살핌이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교통정리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이기적으로 행동해봐야 소용이 없다.(이정전, 2001)

<연구문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가 영역별 가정 건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이며 응답자는 조사대상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는 2인가족의 부와 모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의 수집은 표본이 모집단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 총화표집을 하였다. 먼저 25개의 각 지역구별로 약60부 가량의 질문지를 할당하고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고르게 표집되도록 배분하였다. 조사자는 S대학교와 H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2명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여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여 질문지를 전달하고 직접 찾아오는 형식을 취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비고
주 가정 교육자	아버지	184(21)	
	어머니	731(79)	
연령	20대	65(6.9)	M=41.38 Std=8.42
	30대	354(37.4)	
	40대	363(38.5)	
	50대	152(16.0)	
	60대	11(1.2)	
교육 수준	무학~국졸	16(1.7)	M=13.61 Std=2.72
	중졸	67(7.1)	
	고졸	368(38.9)	
	대졸	447(47.3)	
	대학원 이상	47(5.0)	
가족 생활 주기	미취학 아동기	190(20.1)	M=15.76 Std=10.35
	초등교육기	233(24.7)	
	중등교육기	109(11.5)	
	고등교육기	118(12.5)	
	대학교육기	183(20.7)	
	성인기	112(11.9)	
주관적 계층의식	상의상	16(1.7)	
	상의하	55(5.8)	
	중의상	441(46.7)	
	중의하	348(36.8)	
	하의상	69(7.3)	
	하의하	16(1.7)	
가족원 수	2인	11(1.2)	M=3.95 Std=.89
	3인	280(29.6)	
	4인	464(49.1)	
	5인	134(14.2)	
	6인 이상	56(5.9)	

조사기간은 1998년 6월에 총150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1097부 가운데 유효한 914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의 구성

(1) 공동체적 가정교육

공동체적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가정교육함에 있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실제로 공동체규범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동체규범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덕목으로서 친화적 공공도덕의 준수와 남을 헤아리는 마음씨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지영숙(1999)의 공동체규범척도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침삭하여 재구성하고 신뢰도를 확인한 후 공동체적 가정교육척도로서 명명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편이다', '나는 벼슬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선뜻 자리를 양보한다', '주변사람들이 나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는 편이다', '나는 경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나는 지역사회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나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물품이나 금전 등으로 돋고 있다', '나는 미안함과 감사의 표현을 잘 한다', '나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는다', '평소 환경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 '노약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도와주는 편이다', '나의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가 일상화 되어있다', '주변사람들의 성공과 잘되는 일에 함께 기뻐한다'의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체적 가정교육에 대한 문항간 내적 합치도(inter items consistency)를 통해 알아본 신뢰도는 .797로 나타났다.

(2) 영역별 가정 건전도

가정 건전도 척도는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영숙·이영호(1998)의 척도를 하위 영역화하여 활용하였다. 즉 52개의 문항을 가정분위기영역(15개 문항, 신뢰도계수 $\alpha = .84$), 부모-자녀관계 영역 (15개문항, 신뢰도계수 $\alpha = .85$), 부부관계영역 (8개문항, 신뢰도계수 $\alpha = .91$), 경제생활영역 (6개문항, 신뢰도계수 $\alpha = .77$), 공공질서영역(4개문항, 신뢰도계수 $\alpha = .79$), 친척/형제-자매관계영역(4개문항, 신뢰도계수 $\alpha = .73$)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영역별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각 영역별 문항의 내용은 <표 3, 4, 5, 6, 7, 8> 참조).

(3) 응답척도의 구성 및 자료의 분석

공동체적 가정교육변수와 6개의 영역별 가정 건전도변수들에 대한 응답척도는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5점은 "정말 그렇다", 4점은 "그런 편이다", 3점은 "잘 모르겠다", 2점은 "별로 그렇지 않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의미를 갖는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window 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백분율과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신뢰도검사와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결과의 해석 및 논의

1. <연구문제 1>의 결과 해석 및 논의

응답자의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는 < 표 2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는다'로 3.98이며 근소한 차이인 3.97의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미안함과 감사의 표현을 잘한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문항이 '대체로 그런 편이다'에 해당하는 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나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나는 지역사회모임에 참가한다', '나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물품이나 금전 등으로 돋고 있다', '나와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다'등의 문항은 '잘 모르겠다'에 해당하는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공동체 연대의식이나 그에 따른 실천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신용하·장겹섭(1996)이 지적한 가족 중심적인 태도가 사회전체의 공동체적 연대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가 가족주의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범위를 뛰어넘을 공동체적 시민사회로의 규범과 공동체적 의식이 교육되지 못한 것에 기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및 해석

응답자의 전체의 가정건전도 척도는 모두 52개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은 57.31점이며 이를 문항수로 나누어 환산한 전체의 평균은 4.01점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를 문항별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균 점수를 살펴 본 결과, 부부관계영역(4.21점), 공공질서영역(4.17점), 부모-자녀관계영역(4.05점), 경제생활 영역(4.03점), 친척/형제자매관계(3.96점), 가정분위기영역(3.82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가정분위기 영역의 건전도는 < 표3 >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정분위기 영역은 15개 문항으로 총점의 평균은 57.31로 나타났고, 이를 문항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3.82로 나타나 '대체로 그런 편이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가족원들은 정직한 삶을 산다(4.25)', '우리 집에서

<표 2>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

문항 내용	응답유형에 따른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전체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편이다	.3	1.6	20.5	53.2	14.3	3.70	.87	44.3432 / 7.08 cronbach's $\alpha = .797$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선뜻 자리를 양보한다	.6	10.2	10.9	50.9	27.4	3.94	.92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편이다	1.5	15.3	21.6	47.7	13.9	3.57	.96		
나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40.6	34.8	8.3	12.7	3.6	2.04	1.15		
나는 지역사회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46.5	31.7	6.8	12.0	3.1	1.93	1.13		
나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물품이나 금전등으로 돋고 있다	9.0	39.6	13.1	33.1	5.2	2.86	1.13		
나는 미안함과 감사의 표현을 잘 한다	.3	7.1	10.6	59.3	22.8	3.97	.80		
나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는다	3.9	5.7	14.1	41.4	34.9	3.98	1.04		
평소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	1.1	13.8	16.1	53.7	15.4	3.69	.93		
노약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도와주는 편이다	1.2	17.9	14.8	50.3	15.9	3.62	.99		
나와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다	14.5	33.4	22.8	23.6	5.7	2.73	1.14		
주변사람의 성공과 잘되는 일에 함께 기뻐한다	.4	5.1	13.7	63.4	17.5	3.92	.74		

<표 3> 가정분위기영역의 건전도

문항	점수평균	비고
우리 가족원들은 정직한 삶을 산다.	4.25	*신뢰도 $\alpha = .8888$
우리 집에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4.12	
우리 집에서는 가족원을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4.11	
우리 집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편안하다.	4.04	
우리 집은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3.94	
우리 집은 약속을 잘 지킨다.	3.90	
우리 집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가족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3.88	
우리 집은 남녀노소 똑같이 아끼고 존중한다.	3.85	
우리 집은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대처능력이 있다	3.82	
우리 집은 모두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3.81	
우리 집은 가족 공동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함께 한다.	3.77	
우리 집은 절도와 예의 범절이 있다.	3.76	
우리 집은 가족이 고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한다.	3.75	
우리 집은 공통된 종교를 갖고 있으며, 함께 종교활동을 한다.	3.15	
우리 집은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다. (높은 점수순으로 배열)	2.87	

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4.12)', '우리 집에서는 가족원을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는다(4.1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점

수(3.82)보다 낮은 점수대를 보인 문항은 '우리 가족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우리 집은 가족공동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함께 한다', '우리 집은 절도와 예의범절이 있다', '우리 집은 공통된 종교를 갖고 있으며 함께 종교활동을 한다'와 '우리 집은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다' 등이다.

특히 구체적인 행위로 파악되는 '가사노동분담(2.87)'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지영숙·이영호(1994)의 연구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는 '가정의 민주적인 분위기'였고,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남녀 불평등적인 가정 분위기'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와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가정 분위기에 대한 평가는 가족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모-자녀관계 영역의 건전도는 <표 4>와 같다. 부모-자녀관계영역은 15개문항으로 총점의 평균은 60.76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문항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4.05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그런 편이다'에 해당된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집은 아버지의 자리가 분명하다'가 4.2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우리 집은 부모-자녀가 친밀하다'와 '나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다'가 공히 4.17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족한 부분의 문항은 '우리 집은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다'로 3.65점이었고, 그 다음이 '우리는 자녀에게 인내심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3.82점)'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가 자녀가 아닌 부모세대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만일 같은 문항에 대하여 자녀세대에게 묻는다고 가정한다면 훨씬 낮은 점

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를 그 자체로서 인격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4> 부모-자녀관계영역의 건전도

문항	점수평균	비고
우리 집은 아버지의 자리가 분명하다.	4.20	
우리 집은 부모자녀가 친밀하다.	4.17	
나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4.17	
우리 집은 부모-자녀간 믿음이 있다.	4.16	
나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	4.15	
우리 집은 자녀의 성품, 몸가짐, 언행에 더 가치를 두고 교육한다.	4.10	* 신뢰도 : $\alpha = .8485$
나는 자녀의 개성을 존중한다.	4.09	* 전체평균 : 60.7627
우리 집은 부모의 권위가 있다.	4.07	
우리 집은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다.	4.04	* 표준편차 : 7.2364
우리 집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3.97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한다.	3.95	* 문항평균 : 4.05
나는 자녀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많이 한다.	3.93	
우리 집은 부모의 교육태도가 일관되어 있다.	3.86	
우리는 자녀에게 안내심을 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3.82	
우리 집은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다.	3.65	

3) 부부관계 영역의 건전도는 <표 5>과 같다. 부부관계 영역은 8개문항으로 총점의 평균은 33.66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문항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4.21점으로 나타나 다른 건전도 영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집은 부부가 외도를 하지 않는다'가 4.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 집은 부부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4.31점)'와 '우리 집은 부부가 가정생활에 충실히(4.28점)'가 평균점수(4.21점)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 언행을 요구하는 '우리는 부부가 서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다'(3.83점)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경제생활영역 건전도는 <표 6>과 같다. 경제생활영역은 5개문항으로 총점의 평균은 27.18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문항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4.03점으로 '대체로 그런 편이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집은 경제적 신용을 잘 지킨다'(4.24점)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우리 집은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3.87점)'로 나타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생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 부부관계영역의 건전도

문항	점수평균	비고
우리 집은 부부가 외도를 하지 않는다.	4.53	*신뢰도 : Cronbach's $\alpha = .9090$
우리 집은 부부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4.31	
우리 집은 부부가 가정생활에 충실히(4.28)	4.28	* 전체평균 : 33.6601
우리 집은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있다.	4.19	
우리 집은 부부가 집안일을 함께 의논한다.	4.12	* 표준편차 : 5.3954
우리는 부부가 서로 인격을 존중한다.	4.01	
우리는 부부사이에 동반자 의식이 강하다.	3.98	
우리는 부부가 서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다.	3.83	* 문항평균 : 4.21

<표 6> 경제생활영역의 건전도

문항	점수평균	비고
우리 집은 경제적 신용을 잘 지킨다.	4.24	*신뢰도 : Cronbach's $\alpha = .7710$
우리 집은 소득을 위해 가족원이 열심히 일한다.	4.04	
우리 집은 안정된 수입원이 있다.	4.00	* 전체평균 : 24.1803
우리 집은 근검,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다.	3.90	* 표준편차 : 3.7066
우리 집은 소득과 소비생활에 있어서 가족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생활한다.	3.88	* 문항평균 : 4.03
우리 집은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한다.	3.87	

5) 공공질서영역의 건전도는 <표 7>과 같다. 공공질서영역은 4개 문항으로 총점의 평균은 16.67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문항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4.17점으로 '대체로 그런 편이다'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집은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한다'가 가장 높았고, '우리 집은 지역적, 국가적 공동체의식을 실천한다'가 가장 낮았다. 이는 앞서 공동체규범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의 범위를 뛰어 넘는 적극적인 공동체적 행동은 매우 부족하여 미래사회를 위한 가정교육에서 부모들이 솔선하여 할 과제라 생각된다.

<표 7> 공공질서영역의 건전도

문항	점수평균	비고
우리 집은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한다.	4.34	*신뢰도 : Cronbach's $\alpha = .7868$
우리 집은 교통질서 등 사회의 규범을 준수한다.	4.28	* 전체평균 : 16.6743
우리 집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킨다.	4.27	* 표준편차 : 2.3526
우리 집은 지역적, 국가적 공동체의식을 실천한다.	3.72	* 문항평균 : 4.17

6) 친척/형제-자매관계 영역의 건전도는 <표 8>과 같다. 친척/형제-자매관계 영역은 4개 문항으로 총점의 평균은 15.85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문항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3.96점이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집은 형제자매간 서로 배려한다'(4.03점)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우리 집은 친가 외가의 구분이 없이 양가에 모두 잘하고 있다'로 3.74점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문항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친가위주의 사고방식이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응답자비율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비율이 우세한 것과 관계가 있으며 가정분위기 영역에서 가사노동분담이 가장 낮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표 8> 친척/형제자매 관계영역의 건전도

문항	점수평균	비고
우리 집은 형제자매간 서로 배려한다.	4.03	* 신뢰도 : Cronbach's $\alpha = .8111$
우리 집은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거둔다.	4.01	* 진체평균 : 15.8492
우리 집은 형제자매간 위계질서가 있다.	3.97	* 표준편차 : 2.8483
우리 집은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없이 양가에 모두 잘하고 있다.	3.74	* 문항평균 : 3.96

3. <연구문제 3>의 결과 및 해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응답자의 연령, 학력, 주관적 계층의식, 첫 자녀연령, 그리고 가족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설명력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유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독립변수중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가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9> 공동체적 가정교육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공동체적 가정교육	
	b	β
연령	.003	.004
교육	-.032	-.030
주관적계층의식	.451	.087**
첫자녀연령	.025	.053
가족수	-.075	.071
R ²	.012	
(adjusted R ²)	(.023)	
F	5.255**	

*p<.05 **p<.01 ***p<.001

옛말에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야 예절을 알며, 의식이 죽어야 부끄러움을 안다(倉庫實 則知禮節, 衣食足 則知榮辱 : 「管子」, 牧民編)고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사람들이 법과 예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이근식, 2001).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룰수 있다. 또한 경제적 안정은 소득과 관계가 있는데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는 소득액과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가 예측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것과 더욱 관계가 있다.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안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4. <연구문제 4>의 결과 및 해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가 영역별 가정 건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의 연령, 학력, 주관적 계층의식, 첫 자녀연령, 가족수, 그리고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정 건전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설명력이 .33으로 높게 나타났고 유의도도 .000수준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여기에 기여한 독립변수는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의 한 변수뿐이었다. 따라서 이를 구조적으로 차이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 건전도를 영역별로 구분하고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가정분위기영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귀분석결과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총 변량의 28.4%를 설명할 수 있다.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와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가정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결과를 상기해 보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마음의 여유로 인해 공동체적 가정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가정분위기도 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가정분위기 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가정분위기	
	b	β
연령	-1.5	-.002
교육	1.509	-.018
주관적 계층의식	.493	.069*
첫자녀연령	-4.8	-.018
가족수	.121	.032
공동체적 가정교육	.580	.525***
R ² (adjusted R ²)	.284(.280)	
F	60.156***	

*p<.05 **p<.01 ***p<.001

2) 부모-자녀관계영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회귀분석결과 총 변량의 31%를 설명할 수 있으며 유의도가 .000으로 매우 높았다. 영향을 미친 변수는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의 단일변수로서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는 건전하였다. 대학생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진단을 하였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연구결과(지영숙·이영호, 1994)에 미루어 볼 때 부모가 실제로 공동체적 가정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를 좋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 부모-자녀관계 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독립		부모-자녀관계
	b	β	
연령	-2.8	-.039	
교육	-1.0	-.013	
주관적 계층의식	.153	.023	
첫자녀연령	4.961	.021	
가족수	8.608	.025	
공동체적 가정교육	.566	.555***	
R ² (adjusted R ²)		.312(.308)	
F		68.767***	

*p<.05 **p<.01 ***p<.001

3) 부부관계영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2>과 같다. 회귀분석결과 총 변량의 12.6%를 설명할 수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 변수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는 좋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건전하다는 결과로부터 우리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독립시키고 난 빈동우리 시기에도 부부가 함께 공동체적 실천을 한다면 노년기의 부부관계도 원만하리라는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표 12> 부부관계 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독립		부부관계
	b	β	
연령	-2.0	-.038	
교육	5.303	.009	
주관적 계층의식	.395	.080**	
첫자녀연령	7.098	.040	
가족수	-.167	-.064	
공동체적 가정교육	.262	.344***	
R ² (adjusted R ²)		.126(.120)	
F		21.723***	

*p<.05 **p<.01 ***p<.001

4) 경제생활영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3>와 같다. 회귀분석결과 총 변량의 12.8%를 설명할 수 있다. 역시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와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경제생활영역의 건전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3> 경제생활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독립		경제생활
	b	β	
연령	-6.6	-.018	
교육	1.299	.032	
주관적 계층의식	.260	.077*	
첫자녀연령	-3.9	-.032	
가족수	5.411	.030	
공동체적 가정교육	.181	.346***	
R ² (adjusted R ²)		.128(.123)	
F		22.300***	

*p<.05 **p<.01 ***p<.001

5) 공공질서영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회귀분석결과 총 변량의 19.8%를 설명할 수 있다. 역시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와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도 높게 인식할수록 공공질서영역에서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계층의식보다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행동에 의한 실천일수록 내면의 자신감을 가져와 공공질서영역에서의 건전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표 14> 공공질서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독립		공공질서영역
	b	β	
연령	1.07	.005	
교육	-6.4	-.025	
주관적 계층의식	.145	.068*	
첫자녀연령	-2.55	-.033	
가족수	3.38	.073	
공동체적 가정교육	.144	.433***	
R ² (adjusted R ²)		.198(.192)	
F		37.295***	

*p<.05 **p<.01 ***p<.001

6) 친척/형제-자매관계영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5>과 같다. 회귀분석결과 총 변량의 17.1%를 설명할 수 있다. 인

구사회학적 변인 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없으며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천변수만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핵심은 '나'만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므로 친척, 형제, 자매 관계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5> 친척/형제자매관계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독립		친척, 형제관계
	b	β	
연령	-1.4	-.051	
교육	-1.2	-.040	
주관적 계층의식	1.2	.005	
첫자녀연령	2.816	.030	
가족수	3.340	.024	
공동체적 가정교육	.164	.408***	
R ² (adjusted R ²)	.171(.166)		
F	31.241***		

*p<.05 **p<.01 ***p<.001

V. 결론

현대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상의 세계이다. 그리고 공동체추구에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만드는 곳이 가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가정이 불안정하거나 해체되면서 개인과 다른 사회단위 조직들도 불안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을 할 수 있었다.

먼저 부모의 공동체 규범의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의 실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공동체 연대의식이나 그에 따른 실천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체사회는 공권력에 기초한 법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원들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 이는 전체 가정건전도 영역중에서 일상적인 가정분위기영역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과도 연결지어 볼 때 가정내에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주관적 계층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공동체적 가정교육과 가정건전도중 어느 곳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밝혀졌다. 주관적 계층의식

은 나머지 독립변수에 비해 - 가령 우리의 의지대로 연령이나 가족 수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 - '마음의 운용'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변화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공동체적 가정교육이 잘 실행되고 있는 가정은 매우 건전한 가정이다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은 가정건전도에 매우 유의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정의 중요한 기능인 자녀의 사회화에 있어서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실행은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아가 세계화의 대열에 한국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질서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 사회에는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심 축이 있어야 한다. 대체로 건전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심인물이 된다. 즉 부모가 먼저 공동체적 의식을 배양하고 공동체규범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보고 성장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무언가 느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는 일방적인 교육자라기 보다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촉진자(facilitater)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나의 자녀'라는 생각에서 한 차원 높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시각으로 자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가정은 결과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꾸어 가는 진행형(과정)이라는 점에서 끊임없는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재인식해야 하며, 건전한 가정의 육성은 건전한 사회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이 건전 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함을 증명하고자 시도되었고 실제 연구결과 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건전 가정이라 함은 그 구성원인 가족이 함께 가꾸어 나간다는 점에서 주 가정교육자의 공동체적 가정교육만을 독립변수로 삼은 것은 추후연구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의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과 그것을 모방하여 이루어진 자녀의 공동체 규범의 실행을 함께 조사하고, 그것이 가정건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할 경우, 다양한 결과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접수일 : 200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8월 10일

【참 고 문 헌】

- 장대기(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결속 사이에서. 서울: 아카넷.
- 강완숙(1998). 가족의 가치지향과 부모의 도덕성 및 훈육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2), 11-23.
- 김영환(2002). 공동체주의란 무엇인가. *시대정신*, 3(4), 5-27.
- 김태길(1997). 우리들의 시민의식: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사회공동선언·동연합소식지*, 30, 12-15.
- 서경요(2000). 현대사회와 유교공동체주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개소기념문집*, 1-10.
- 서명숙(1994). 건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가정의 기능적 주변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75-280.
-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 어은주·유영주(1997). 한국도시가정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이동원(1996). 생활문화의식과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 -가족, 이웃, 그리고 세계로- 배려문화와 가정교육-. *한국가족문화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61-169.
- 이영호·지영숙(1997).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및 수행이 가정건전도에 미치는 영향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87-97.
- 이영호·지영숙(1999). 부모의 공동체구별과 가정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207-220.
- 이재경(1994). 현대사회의 반사회성. *철학과 현실*, 22, 67-77.
- 이정전(2001). 도덕성봉괴의 진원은 시장이다. *철학과 현실*, 51, 27-41.
- 임희섭(199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장현섭(1994). 내면 대로 자란 아이들: 신세대의 가정교육. *한남재 외 공저. 한국가족관계의 문제-방황하는 자녀·소외된 노인* (91-116), 서울: 다산출판사.
- 중앙일보(2001) 공동체 떠난 개인의 자유는 없다. 2000. 7. 26. 15면.
- 지영숙(1994). 건전 가정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가정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81-187.
- 지영숙·이영호(1994). 가정교육의 현대적 과제 -제3보-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24, 155-170.
- 지영숙·이영호(1994). 가정교육의 태도 측정을 척도개발시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80-89.
- 지영숙·이영호(1996).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건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77-90.
- 지영숙·이영호(1998). 한국가정의 건전도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33-250.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 한상복(1982). 한국인의 공동체의식. *정신문화*, 12, 2-15.
- 황경식(2001). 올바른 것(義)은 이로운 것(利)인가 -윤리와 경제의 접근. *철학과 현실*, 51, 42-60.
- Becker, G 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ierke, O.(1990). *Community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önig, R(1968). *The Community*. New York : Schocken Books.